

시연(施連) 칼럼

송화강(松花江)



권오신
좌원공파총회장·칼럼니스트

송화강(松花江)은 우리 민족(民族)의 한이 깊게 서린 젖줄 같은 강이다.

해란강 일송정 용정 청산 연길 등 강물을 따라붙는 이름들은 내 피부에치러렴 살갑게 다가서는 지명들이다. 박경리(朴景利, 1926~2008)의 장편소설 ‘토지’나 안수길(安壽吉, 1911~1977)의 ‘북간도(北間島)’를 통해서 더 친숙해진 간도(間島) 땅은 우리 민족에게 늘 아련히 떠오르는 정신적(精神的) 고향(故鄕)이다.

조선(朝鮮)과 청나라 사이에 끼여 바다의 섬처럼 보이는 곳이라 해서 간도(間島)라 했다. 백두산(白頭山)에서 발원(發源)한 길이 2천여km의 송화강(松花江)은 간도(間島)를 가로질러 만주 땅 동북(東北) 평원(平原)을 돌고 돌아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을 적시고 러시아 아무르강을 만나 동해(東海)로 들어가면 끝이다.

옌벤이 함경도에서 건너온 동포(同胞)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이라면 지린성 퉁탄구에는 경상도(慶尙道)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최근까지(지린성 아라디촌) 집단 마을이 존재했다는 보도는 더 흥미롭다.

송화강(松花江)을 바라보는 언덕배기에는 유난히 무덤이 많다.

강절기, 일제(日帝)의 수탈(收奪)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해 살았던 선조(先祖)들이 영면(永眠)하는 땅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 말(1945년)까지 만주에 살았던 우리 동포는 170만 명이 넘었다.

해란강 용정 훈춘시 헤이룽장성 일대에는 벼짓 지붕을 엮고 새끼줄로 열기설기 두른 초가집이 남한(南韓) 땅 어느 곳보다 더 잘 보존된 곳이 많다. 간도(間島)는 고조선(古朝鮮)에서 발해(渤海)까지 우리 민족이 3,300년간이나 지배했던 땅이어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남는 영원한 고토(古土)다. 더욱이 송화강(松花江)은 하천의 신 ‘하백’이 살았던 강이자 주몽이 송화강의 천년 영물 거북의 등을 타고 이 강을 빠져나와 고구려(高句麗)를 창건했다.

1712년 조선(朝鮮)과 청은 ‘압록강(鴨綠江)과 토문(土門)강’을 경계로 삼는다는 백두산(白頭山) 정계비(定界碑, 朝鮮 숙종 38년)를 세웠다.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다. 여진은 간도 땅을 민족 발상지라면서 한때는 주인이 사는 것을 막기도 했지만 어립없는 우리 땅이다.

역사적(歷史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보다 훨씬 먼저 부여가 자리 잡은 땅이었고 고구려(高句麗)를 세우기전 주몽이 소년기를 보낸 땅이어서 우리에게 더 정겨운 곳이다. 그래서 송화강(松花江)은 지금도 살아 있는 영토여서 불씨를 안고 있다. 그 상류의 가느다란 하천 이름을 놓고 한국(韓國)과 중국(中國)의 엇갈린

입장이 명료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토문강이 두만강이냐, 송화강 상류의 지류냐를 밝힐 필요가 있다.

고종 22년(1885) 안변부사(安邊府使)로서 토문감계사를 겸직했었던 이중하(李重夏, 1882년 고종 19년 증광문과 급제)는 청나라 관리들과의 새로운 협상에서 토문강은 송화강(松花江)의 지류가 명백하니 간도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했다.

티베트는 물론 위구르까지 자국 영토로 집어넣은 중국(中國)의 영토 욕심으로 인해 이웃들이 피해를 입은 극명한 사례다. 간도(間島) 국경협상 대표 이중하(李重夏)는 청나라 측이 간도(間島)를 넘기라는 말에 “내 목을 쳐라. 국경선(國境線)은 한지도 변경할 수 없다”고 불호령을 내리고 지킨 땅이다.

고인(故人)이 되신 소설가(小說家) 박경리(朴景利, 1926~2008) 선생(先生)은 이중하(李重夏)를 두고 “구한말(舊韓末) 자칫 청의 위세에 눌려 빼앗길 뻔했던 간도(間島)를 지켜 낸 위대한 역사적(歷史的) 의인(義人)이다”라고 했다.

안변부사(安邊府使)이자 토문감계사 이중하(李重夏)는 일제(日帝)가 훈장(勳章)과 3천 원의 은사금을 내리고 일제(日帝)의 편으로 끌어들여 했지만 불같이 화를 내며 돌려보냈다.

일제(日帝)는 훗날 일왕이 내린 작위(후작)까지 거절한 이중하(李重夏)를 잡아다 눈에 송충이를 집어넣고 못된 고문을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던 위대했던 의인(義人)이었다.

송화강(松花江)은 이런 저런 민족(民族)의 애환(哀歡)을 품고 오늘날에 유장하게 흐른다. 시인(詩人) 파인(巴人) 김동환(金東煥)이 남긴 ‘송화강 뱃노래’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움이 가득 묻어 있다.

구름만 날리나/ 내 맘도 날린다/ 돌아보면 고국이 천리만가...

그가 동포들은 추석(秋夕)과 설 명절만은 한국에서 사는 사라진 민속(民俗)놀이를 통해 며칠을 즐긴다고 하니 외로울 때 기댈 아껴가 없는 한국 사회와는 다르다.

이런 송화강(松花江)이 지난 2005년부터 중국(中國)이 열을 올리는 화학공업단지(化學工業團地) 건설(建設)로 인해 오염(汚染)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그러면 어떤가.

고토(古土)는 회복되지 못해도 얼어붙은 남북(南北) 관계가 봄바람처럼 풀려 백두산(白頭山) 천지(天池)를 찌고 송화강(松花江) 넓은 초원(草原)을 밟으면서 고토를 지킨 동포들을 만나고 싶다.

더욱이 북(北)에는 안동권씨(安東權氏), 우리 족친(族親)들이 많이 살고 있다.

어렵기로 이름난 고려(高麗) 문과(文科)에 급제, 판도상서(版圖尙書)를 지낸 상서공(尙書公, 휘諱 공신공 信 15世)의 네 형제와 네 자녀의 후손 등 개경을 생활근거지로 삼았던 후손들이 北에 살고 있다.

‘삶은 소대거리’등 막말이 쏟아지는 등 북(北)의 막말이 사라지고 남북(南北) 관계가 봄빛을 머금은 대동강(大同江) 물처럼 풀려 안동권씨(安東權氏) 후손들이 안동(安東) 천등산 시조(始祖) 묘소에서 절하는 모습을 내 생전에 꼭 보고 싶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한국 최초 족보 성화보(成化譜)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로서 우리 권문 사시(四始) 가운데 ‘족보의 시(始)’로 들어 있는 성화보(成化譜)는 중국 성화(成化) 시대에 간행된 안동권씨세보(安東權氏世譜)이다. 성화는 명(明)나라 헌종(憲宗)의 연호로 서기 1465년부터 1487년까지이다. 성화보가 발간된 해는 성화 12년, 조선 성종 7년, 병신년(丙申年), 서기 1476년이니 지금부터 545년 전이다.

성화보의 서문(序文)은 시조후 16세 양촌(陽村) 권근(權近) 공의 외손자인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 공이 지었다. 여기서 사가정(四佳亭) 공은 성화보 발간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서거정(徐居正)]의 외숙(外叔) 문경공(文景公) 권제(權跬)가 처음으로 작은 첩자(牒子) 형태의 가보(家譜)를 만들었다. 문경공의 아들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익평공(翼平公) 권람(權輅)이 선고(先考)의 뜻을 받들어 널리 모으고 두루 찾아서 크게 더하고 윤색(潤色)하였으나 일이 진척되지 못했다. 내가 상주판관(尙州判官) 박원창(朴元昌) 그리고 대구부사(大邱府使) 최호원(崔灝元)과 함께 더욱 찾고 물어서 빠진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고증(考證)하고 정리해서 도보(圖譜) 2권을 만들다. <중략> 족보가 완성되고 나서 경상감사(慶尙監司) 윤호(尹壕) 공에게 시켜 안동부(安東府)에서 간행하게 하였다.”

또한 발문(跋文)은 안동도호부 교수(敎授) 최진(崔鎭)이 지었다. 최(崔)공은 시조후 19세 권구(權耆) 공의 사위이다. 최공은 안동부에서 성화보를 인쇄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말하였다.

“경상감사 윤호(尹壕) 공은 권적(權適)[시조후 15세]의 외현손(外玄孫)이라 가까이 그 명을 좇아 안동부에서 간행하도록 하고 나[최진]에게 명하여 감독하도록 했는데 시일이 얼마 걸리지 않아 인쇄가 끝났다”고 하였다.

사가정 공은 역시 <성화보 서문>에서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권씨는 대대로 청백(淸白)을 가풍으로 전하고 충효(忠孝)를 마음으로 삼아 왔으니 자손으로서 조상이 쌓아 오신 부지런함을 염두에 두어 이를 계속 이어갈 방도를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사람의 도리는 진족을 친히 하는 것이다. 친족을 친히 하기 때문에 조상을 높이고, 조상을 높이기 때문에 종통(宗統)을 공경하고 종통을 공경하기 때문에 종족을 거둔다 [人道親親也. 親親故尊祖. 尊祖故敬宗. 敬宗故收族]’ 고 하였다. 만약 친족을 친히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구족(九族)에게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근본을 두터이 하고 말단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너의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말아서 그 덕을 닦을지어다 [無忝爾祖. 事修厥德]’ 하였다. 나는 다시 이 말을 권씨의 자손에게 권면하는 바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 대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안동권씨 1100년사>편찬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성화보는 1928년 음력 12월 1일에 시조후 31세 권병섭(權丙燮) 공의 서문과 시조후 33세 권태준(權泰峻) 공의 발문을 맨 앞에 덧붙여 천지인(天地人) 3권으로 중간(重刊)되기도 하였다. 이 중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안동권씨세보(安東權氏世譜)”로 검색하면 무료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그 표지에는 “안동권씨족보(安東權氏族譜) 성화병신보(成化丙申譜)”로 되어있다.

그리고 <성화보 서문>은 <사가문집(四佳文集)>에도 수록되어있으며 제목은 “안동권씨가보서(安東權氏家譜序)”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에는 원문 외에 국역문도 함께 실려 있다.

편집위원장 권갑현

부정공과 영해문중 후손 2명
서울대 동시 합격



이온자 할머니



권윤한군



이규민군

안동권씨부정공과 영해문중 후손 2명(외8촌)이 올해 서울대학교에 동시 합격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정치외교학부에 합격한 권윤한군(20)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에 합격한 이규민군(20)으로 두 학생은 외8촌 간이다.

권윤한군은 충남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상 충남대상을 받았으며 아버지 권경안씨(50)는 한의학 박사로 대전에서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할아버지 권원대씨(77)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였다. 이규민군은 경기도 안성기온고등학교를 졸업,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았으며 어머니 이정임, 아버지 이기섭씨(47)는 삼성전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할머니는 권영에서(72)이다. 권윤한군의 할아버지 권원대씨와 이규민군의 할머니 권영애씨는 남매이다.

부정공과 영해문중 권중균 할아버지는 경북 영덕에서 이온자 할머니와 결혼, 권원대. 권영애 두 남매를 낳고 돌아가셨는데 현재 이온자 할머니(97)는 살아계신다. 안동이 고향이고 퇴계 선생 후손인 이온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자식들에게 철저한 가정교육을 잘 시켜 오늘의 영광을 가져왔으며 30여년 전에는 경북도 보화원에서 주관하는 열행상을 받기도 했다.

보도부장 권영진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차남
목사공牧使公 양良 춘향제 봉행



2021년 4월 18일 일요일 경기 양주시 현헌면 하패리 616-3에서 화산부원군 차남 양 목사공의 춘향제가 봉행되었다.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조참의吏曹參議 병자호란丙子胡亂의 총렬忠烈 목사공牧使公 양良은 시조후 18세로 화산부원군 목의 7남 3녀 중 2남으로 세조 1년 1455년 12월에 좌의원중공신左翼顯從功臣 3등에 록훈錄勳되는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것으로 진주목사라는 것 외에 민몰되었던 사적이 다소 드러나게 되었다. 2004년 안동권씨 한글판 대동세보에 보면 세조 11년 1465년 2월 27일자 실록 원각사圓覺寺를 세우는 역사의 낭만으로 나오고 2월 30일에 그 공사장의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다가 3월 22일에 같은 책임에 복직된다. 세조 13년 1467년에는 안변부사로 부임하며 성종成宗 1년 1470년 6월 3일에는 당상관堂上官 통정대부로서 진주목사가 되어 나간다. 정과를 거치지 않은 음관으로서 당상관으로 올라 안변과 진주의 부·목사를 배한 것을 보면 그 자품이 탁월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진주목사로서 선취하여 1년 과기를 넘기고 재임 2년이 가까이 된 성종 3년 1472년 1월 24일에 공이 목사로서 관내 백성이 왜인과 투점投接한 사건으로 인책된다. 투점投接이란 요즘의 간첩사건과 같다. 이 사건으로 고을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직된 이후에 공의 행적은 기록에 남은 것이 없다. 공의 생몰년월일 또한 실종 되었다.

춘향제 초헌관에는 종손 현찬, 아헌관에는 종회장 영관, 종헌관에는 이사 태균으로 분정하여 각각 헌작하였다.

행주서원 원장 권정택

행주서원 춘향제 봉행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맨 왼쪽)과 헌관 및 집사.

행주서원은 4월 26일 11시 권정택 원장 등 20여명의 참재원이 참석한 가운데 춘향제를 봉행하였다. 행주서원에는 권을 도원수 등 행주대첩 당시 참전했던 일곱분의 장군이 배향되어 있다. 이날 안동권씨 문중 대표로 추밀공파 정헌공계 화산부원군중종 권현찬 총무가 종헌관으로 봉행하였다.

행주서원 원장 권정택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중국 서부지역 사진전’ 개최

권기식 한·중 도시우호협회 회장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중국 서부지역 사진전’을 신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 이수성 전 국무총리,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호명 태고종 총무원장, 조광환 남양주시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1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갤러리에서 개최하였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한중 우호를 위해 개막되는 전시회인 만큼 중국 서부지역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광이 한국 국민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축사에서 “중국 서부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 서부지역 사진전이 한중 문화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호명 태고종 총무원장 등도 축사를 통



이수성 전 국무총리, 신하이밍 주한중국대사,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호명 총무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해 한중문화교류의 의미를 짚어보며 전시회를 축하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축전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사진전은 주한중국대사가 주최하고 한중도시우호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전시회는 티베트와 신장·위그르 지역 등 한국인들이 가보기 어려운 중국 서부지역의 자연 풍광과 생활, 발전상 등을 담은 사진작품을 비롯하여 고대 실크로드 중심 지역과 쓰촨성 ‘러산 대불’과 불교문화학의 보고 ‘막고굴’이 있는 간쑤성 ‘둔황’ 등 중국 불교문화와 자연유산을 느낄 수 있는 사진 60여점이 전시된다.

중국 서부지역 사진전 안내서는 “특히 서부지역은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곳에서



러산(樂山) 대불(大佛)

수려한 자연경치를 감상하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깊은 민족적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중국 서부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개했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력회 회장은 “이번 사진전이 평화와 발전으로 가는 중국 서부지역의 생생한 모습을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룬 중국 서부지역에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고 서로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열리게 되며, 이후 연말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와 대구시 등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의 인민일보(人民日報)를 비롯한 신화(新華)통신, 중국신문주간 등 중국의 유력 매체들이 지난 21일 서울에서 개막된 한·중 문화교류의 해



파미르고원(帕米爾高原)



감숙둔황명사산(甘肅敦煌鳴沙山)



청해성소수민족복장(青海省少數民族服裝)

기념 ‘중국 서부지역 사진전’을 대거 보도했다. 중국의 유력 한글 신문인 길림신문과 흑룡강신문도 사진전 개막을 크게 보도했다.

편집국장 권행완